

‘See-KAIST 2011’ 융합과학 체험활동 보고서

인적사항	전북기전여자 학교 2학년 7반 13번 이름 : 백승은		
활동 일시	2011년 11월 4일(금) 10:00-15:00(5시간)		
실시 장소	KAIST 대전캠퍼스내 스포츠 컴플렉스 1,2층 Lobby(N3 건물)		
활동 주제	대학에서 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체험 활동 주요 내용	<p>화학과의 통합접착제</p> <p>제일 먼저 흥미를 끈 것은 화학과의 통합접착제이다. 통합접착제는 통합이 바위에 붙을 때 분비하는 분같은 물질을 이동하는 것으로, 물속에서도 접착력이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화학과에서는 석명과 함께 직접 체험의 기회도 주었는데, 정말 물속에서도 전착력이 느껴졌다. 이 접착제는 의료용으로 사용되어 조금 더 접착력이 강화되면 심혈관되어 미래에는 상로 상처를 꿰매는 것이 아니라 접착제로만 상처를 붙일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생각을 넣어서 일기가 상생만 해도 좋겠다.</p> <p>기계항공시스템학부 기계공학전공 - 번들용 내시경</p> <p>제일 처음 체험한 것은 이것이다. 의사들이 실제 내시경을 하기 전 연습하기 위한 기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이 나오고 내시경은 상자안에 있어 컴퓨터를 보면 내시경기기를 이리저리 잘 돌아다니게 하는 것이다. 석명으로 개박만지만 의미는 작막을것이라 생각하겠다. 체험해보았는데 생각만큼 쉽지 않다. 그래서 내시경 한번 하는데 백만원은 드는거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p> <p>이상으로 가장 인상에 남았던 체험 2개를 소개했다. 물론 복스는 이보다 더 많고, 체험한 것들도 더 많다. 다들 열심히 준비했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 생소한 내용을 알아가는데 어려움이 많지 않았다. 물론 부담도 없지 않았지만, 그곳에 가 체험을 한 자체만으로 보람있게 느껴진다.</p>		
활동 후 느낀점	<p>나는 이과생이다. 남들은 대학에 학과도 들어갈 수 있는 곳들이 많고, 직업의 기회도 무궁무진하다는 이과. 하지만 정작 나는 대학교에서 하는 일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른다. 이게 많이 도와? 기회가 있음에도 사용방법을 모르다니! 아무튼 그 생각 후 나는 대학의 학과체험을 할 기회를 가져보고 싶었다. 그러다가 퀘이 들린 것이 가이드 보충제임! 체험과도 만족스러웠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과들이 있었고, 모두 흥미로운 체험활동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안타까운것은 내가 가고싶은 화공과의 전사가 없었다는것 그것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가이드의 단편이4마 보충이 아니 금은 많다.</p>		
지도교사 평가	·(0) 보람 있게 매우 잘함 ·() 활동이 보편적임	·() 대체로 잘함 ·() 체험활동이 미약함	지도 교사 서명 김 경 희
위와 같이 체험활동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1년 11월 4일 전북융합과학연구회장			

